

2015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예비조사¹⁾ -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조사를 대상으로 -

Pre-survey of 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Index 2015
- Cognitive and practice survey -

정기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김동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경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생산을 위한 조사의 한 분야로 전국 단위의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조사가 함께 수행된다. 이 조사의 대상자가 2017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확대 개편된 2017년 본조사를 앞두고 기존 초·중·고등학교 설문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실시되었고, 중·고등학교용 설문지가 추가로 개발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한 예비조사가 중·고등학교 2238명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식품안전 및 영양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50% 미만으로 낮았고, 식품 구매 시에는 위생·안전 또는 건강을 고려하기보다는 맛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청소년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는 학교 교육과 방송매체로 조사돼 이들을 적극 활용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청소년기에 식품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식품안전 정책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2009년 시범조사 이후 2014년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조사로 전환되면서 현재 2017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어린이 식생활 영양,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조사 방법으로는 지자체 행정 실적 평가와 학생

1) 본 연구는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15162식품안038)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대상 인식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관련 행정 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인식 조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실수혜자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를 파악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조사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아동복지법²⁾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³⁾ 기준에 따라 2017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새로운 문항을 활용해 2015년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기존 초등학생 대상 조사 문항도 일부 개선돼 조사에 활용됐으며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조사표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2015년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조사 설문 문항 개선 내용과 중·고등학생 조사용으로 신설된 문항의 예비조사 결과를 개진하였다.

2. 기존 설문 문항 수정 및 중·고등학생용 인지·실천 설문 문항 개발

가. 기존 설문 문항 검토 및 개선

기존 인지·실천 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 섭취 실태 등을 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왔다. 각 지표는 하나 이상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표 1>에 기존 초등학생 대상 설문 문항이 정리돼 있다.

표 1. 기존 초등학생 대상 설문 문항

평가 지표	설문 문항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지도	- 고·저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려는 실천 수준 - 고·저 식품 인지 수준
영양성분표시 인지·실천 수준	- 영양표시 인지 수준 - 과자, 음료 구입 시 영양표시 확인 수준 - 비만인 사람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영양소
개인위생 관리 인지·실천 수준	- 식사 전/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의 중요도 - 식사 전/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 씻는 횟수
올바른 식품 구매 인지·실천 수준	- 학교 주변 식품 판매처의 위생 상태 인지 수준 - 학교 주변에서 간식을 살 때 위생적인 곳에서 사려는 노력
세끼 식사 섭취 수준	- 지난 일주일간 식사를 한 횟수(아침, 점심, 저녁)
과일, 채소 및 흰 우유 섭취 수준	- 지난 일주일간 과일, 채소 반찬 및 흰 우유 섭취 횟수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과자 섭취 수준	- 지난 일주일간 탄산음료, 컵라면, 초콜릿 섭취 횟수 - 지난 일주일간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닭튀김) 섭취 횟수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항.

기존 설문 문항을 검토한 결과 응답체계가 문항별로 2단계, 4단계, 5단계 등으로 통일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위해 응답체계를 5단계 리커르트 척도로 재구성해 설문지의 통계학적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

수’를 검증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설문지 응답 구성을 신뢰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5단계 리커르트 척도로 통일하는 것 등의 원칙을 갖고 지표를 개선하였다. <표 2>에 응답체계를 수정한 예시가 제시돼 있다.

표 2. 응답체계 수정 예시

기존		개선	
세부 평가 지표	응답체계	평가 지표	응답체계
영양성분표시 인지·실천 수준	① 확인한다 ② 확인하지 않는다	영양성분표시 인지 수준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확인한다 ⑤ 항상 확인한다
개인위생 관리 인지·실천 수준	① 거의 씻지 않는다 ② 가끔 씻는다 ③ 대부분 씻는다 ④ 식사하기 전마다 항상 씻는다	식사 전 손 씻기 정도,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정도	① 전혀 씻지 않는다 ② 거의 씻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부분 씻는다 ⑤ 항상 씻는다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문 내용에서는 지식, 태도 및 실천 모형(KAP model: Knowledge Attitude Practice model)에 근거해 지표를 검토하고 개발 및 개선하였다. KAP 모델은 Schwartz⁴⁾에 의해 1976년에 처음 제안된 모델로 지식(knowledge)의 습득을 통해 태도(attitude)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행동(practice)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다고

설명하는 모델이다. 지식의 습득만으로 행동 변화가 유도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 대한 평가도 균형감 있게 병행돼야 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타 조사와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41개 문항이 사전조사를 위해 선정되었다.

4) Schwartz, N. E. Nutrition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Canadian public health nurse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8(2), 28-31, 1976.

나. 중·고등학생용 인지·실천 설문 문항 개발

중·고등학생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예정에 따라 기존에 활용된 초등학생 설문지를 근간으로 중·고등학생의 특성 및 식생활 환경을 고려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중·고등학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등 타 조사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라는 주제에 부합하되 타 조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복성과 독자성을 고려해 설문 문항을 개발했다. 동시에 초등학생과 차별화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의 인지 능력을 고려해 식품안전, 영양제도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인지 정도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설문이 개발되었다.

검토 결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영양제도 인지 실태 조사는 거의 없었다.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매년 2회씩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에서는 식품·영양 정책에 대한 인식, 정보 활용 수준, 실제 식품 구매 행태 등의 내용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성인에 한정돼 중·고등학생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1990년 대비 2010년에 약 50배 증가한 외식의 영향력과 폐해가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식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가정식 외의 식품 섭취 시 중·고등학생 스스로 어떤 인식하에 어떤 식품을 구매하는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3〉에 사전조사를 위해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설문 내용이 제시돼 있다.

표 3. 2015년 중·고등학생용 설문 내용 개발(사전조사)

평가 항목	평가 지표
1. 학교 내 식품 및 영양교육	1-1. 학교 내 식품 및 영양교육 만족도
2. 식품안전 영양제도 인지	2-1. 식품안전·영양제도 인지 수준
	2-2. 식품안전·영양제도 관심 수준
	2-3. 식품안전·영양제도에 대한 인지·관심이 낮은 이유
3. 식품안전 영양 매체 활용	3-1. 가장 활용도 큰 식품안전·영양 매체
4. 가정 내 섭취 식수 현황	4-1. 1일 섭취 식수(간식 포함)
5. 식품 구매 현황	5-1. 식품 구매 빈도
	5-2. 식품 구매 시 동반자
	5-3. 식품 구매 시 결정 요인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3. 사전조사를 통한 통계학적 검증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체계를 재구성해 개선된 설문 문항의 통계학적 신뢰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하였다. 2015년 예비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만 조사 대상에 해당했으나 새로 개발된 중·고등학

생용 설문 문항의 검증 외에도 기존 초등학생 대상 설문 문항의 개선에 따른 통계학적 검증을 위해 일부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급별로 10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크론바흐 알파값을 산출해 조사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4. 초·중·고등학생 사전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표본 학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0명씩 총 300명
조사 목적	인지·실천 설문지의 통계학적 검증을 위한 크론바흐 알파값 산출
표본 추출 방법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 추출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한 할당별 면접조사(초등학생) - 표본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할당별 면접조사(중·고등학생) - 기존 조사원 활용
실사 기간	2015년 7~8월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크론바흐 알파값은 조사자들이 조사 문항에 일관성 있게 반응했는지를 파악하여 조사 문항 간 동질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하고, 0.5 이상은 조사표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검증된 총 50개 문항(초등학생용 41문항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9문항의 합)의 인지·실천 조사표의 신뢰도는 0.56으로 나타나 설문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61로 전체 대상자 값보다 높게 나와 새롭게 개발한 설문 항목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값이 0.51로 중·고등학생의 0.61보다 낮은 것은 초등학생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주무 부서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 문항이 확정되었고, 예비조사 시에는 초등학생 대상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표 5>에는 예비조사에 사용된 최종 평가 지표가 제시되었다.

표 5. 예비조사에 사용된 인지·실천 조사 평가지표

조사 대상	평가 항목	평가 지표	
	11개	26개	
중·고등학생	4-1. 식품안전·영양제도 인지	4-1-1. 인지 수준	
		4-1-2. 관심 수준	
		4-1-3. 인지, 관심이 낮은 이유	
	4-2. 식품안전·영양 매체 활용	4-2-1. 가장 활용도가 큰 식품안전·영양 매체	
	4-3. 가정 내 섭취 식수 현황	4-3-1. 가정 내 1일 섭취 식수(간식 포함)	
	4-4. 식품 구매 현황	4-4-1. 식품 구매 빈도	
		4-4-2. 식품 구매 시 동반자	
		4-4-3. 식품 구매 결정 요인	
	초·중·고등학생	4-5.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지	4-5-1.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지 수준
			4-5-2. 고열량·저영양 식품 실천 수준
4-5-3. 고열량·저영양 식품 지식 수준			
4-6. 영양성분표시 인지		4-6-1. 영양성분표시 인지 수준	
		4-6-2. 영양성분표시 확인 수준	
		4-6-3. 영양성분표시 지식 수준	
4-7. 개인위생 실천 현황		4-7-1. 식사 전 손 씻기에 대한 인식 수준	
		4-7-2. 식사 전 손 씻기 실천 수준	
		4-7-3.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에 대한 인식 수준	
		4-7-4.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실천 수준	
4-8. 학교 주변 판매 식품 인지		4-8-1. 학교 주변 판매 식품 구매 정도	
		4-8-2. 안전 및 영양에 대한 인식 수준	
		4-8-3. 위생적인 곳에서 구매하려는 실천 수준	
4-9. 아침 식사 섭취 실태		4-9-1. 아침 식사 섭취 빈도	
4-10. 주요 식품 섭취 실태		4-10-1. 과일, 채소 및 흰 우유 섭취 수준(3문항)	
		4-10-2.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과자 섭취 수준(6문항)	
4-11. 주요 식품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지		4-11-1. 과일, 채소 및 흰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4-11-2.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과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4. 예비조사 실시

가. 조사 개요

조사 지역은 대도시 69개 구, 중소도시 78개 시, 농어촌 82개 군을 인구수 기준으로 층화한 후 24개 지역을 계통추출했으며, 같은 시도에서 여러 지역이 추출될 경우 유사 규모 타 시도의 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조

사는 전문조사원이 표본 학교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 학생이 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7〉에 조사 개요가 제시돼 있는데 조사 대상은 24개 지역에서 표집 추출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1000명씩 총 2000명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집중도를 고려해 3학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예비조사 개요

조사 대상		조사 기간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방법	조사 도구	조사 기관
중학교 1~3학년	1000명	2015. 9. ~ 2015. 10.	지자체 규모별 층화 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집락 표집 추출	전문조사원의 표본 학교 직접 방문을 통한 자가 기재식 조사	5단계 리커르트 척도로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	한국갤럽
고등학교 1~2학년	1000명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조사 대상

표본 추출된 24개 지자체 내에서 학교급(중학교·고등학교), 학년(1~3학년)을 층화로 최종 표본 학교를 선정하였다.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별로 최소 1개 이상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분한 후 해당 학년의 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또한 학교 선정 시 남녀 학생별

로 균형적인 분포를 갖도록 학교 유형 비율을 추가로 고려해 배분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의 조사 대상 학생 선정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로 1개 학급을 선정한 후 해당 학급에서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주어진 표본 크기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표본 학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표 7. 지역 규모별·학년별 표본 배분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지역 규모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중학교	대도시	128(13) ¹⁾	146(15)	145(14)	419(42)
	중소도시	134(13)	151(15)	148(15)	433(43)
	농어촌	46(5)	51(5)	51(5)	148(15)
	소계	308(31)	348(35)	344(34)	1000(100)
고등학교	대도시	210(29)	216(30)	-	426(59)
	중소도시	213(27)	218(29)	-	431(56)
	농어촌	71(9)	72(11)	-	143(20)
	소계	494(65)	506(70)	-	1000(135)
합계		802(96)	854(105)	344(34)	2000(235)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조사 대상 표본 학교 수를 의미함.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4-68> 재구성.

5. 예비조사 결과

<표 8>에 예비조사 참여 결과가 제시돼 있다.

총 241개 학교에서 모두 2238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가. 조사 완료 현황

표 8. 예비조사 완료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중학교		일반고		총조사 학교 수	총응답 학생 수
	조사 학교 수	응답 학생 수	조사 학교 수	응답 학생 수		
대도시	44	434	57	511	101	945
중소도시	43	434	29	493	102	927
농어촌	15	158	23	208	38	366
합계	102	1,026	139	1,212	241	2,238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4-72> 재구성.

나. 조사 결과

1) 식품안전·영양제도 인지

식품안전과 영양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1.8%였고,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1.2%였다. 즉, 약 17%의 학생만이 식품안전과 영양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중학생의 38.8%, 고등학생의 44.3%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중학생의 42.8%, 고등학생의 39.8%였다. 식품안전 및 영양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학습 수준·지식 수준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품안전과 영양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44.3%였고, 중학생의 41.7%와 고등학생의

46.4%가 관심 없다고 대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관심이 낮은 이유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7.9% 포인트 높았고, 접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7.2% 포인트 높았다. 재미가 없다고 응답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인지도와 관심이 낮은 이유 조사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난 반면, 식품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항목의 3가지 지표에서는 지역 규모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9. 식품안전 및 영양제도 관련 결과

(단위: %)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들어 본 적이 있다	대략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p-value
		전체	10.3	31.5	41.2	13.6	3.4
학교급별	중학교	9.7	29.1	42.8	14.0	4.3	.051
	고등학교	10.7	33.6	39.8	13.2	2.7	
지역규모별	대도시	11.2	31.2	40.0	13.8	3.8	.309
	중소도시	10.0	30.1	42.0	14.5	3.5	
	농어촌	8.5	36.1	42.1	10.9	2.5	

(표 계속)

관심도	구분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p-value
	전체			7.3	37.0	40.3	12.5	3.0
학교급별	중학교		6.2	35.5	42.4	12.7	3.2	.167
	고등학교		8.2	38.2	38.4	12.4	2.8	
지역 규모별	대도시		8.5	35.9	40.0	12.8	2.9	.135
	중소도시		6.6	37.1	39.2	13.8	3.3	
	농어촌		6.0	39.3	43.7	8.5	2.5	
관심이 낮은 이유 ¹⁾	구분		내용을 이해하 기 어렵다	재미가 없다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다	접할 기회가 없다	모름/ 무응답	p-value
	전체		10.2	23.0	16.6	49.9	0.3	-
	학교급별	중학교	14.7	23.1	16.1	45.8	0.2	.001
		고등학교	6.8	23.0	16.9	53.0	0.4	
	지역 규모별	대도시	10.5	24.8	14.8	49.6	0.2	.738
		중소도시	9.1	22.5	17.3	50.6	0.5	
		농어촌	12.0	19.9	19.3	48.8	0.0	

주: 1)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서 '전혀 관심 없다' 및 '관심 없다'를 선택한 학생 990명 대상.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4-99, 100, 101> 재구성.

2) 식품안전·영양 매체 활용

식품안전과 영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느 매체로부터 획득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돼 있다.

전체 응답자의 31.2%가 학교라고 응답해 수업 시간, 가정통신문,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방송매체 29.5%, 인터넷 19.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4.0%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는 비율이 9.6% 포인트 높았다. 방송매체 3.0% 포인트, 인터넷 3.2% 포인트 등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획득한다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도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학교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은 대도시가 높고 방송매체,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농어촌 학생 사이에서 더 높았다. 인쇄매체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0.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정보 획득 시 주요 이용 매체

(단위: %)

구분	학교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SNS	기타	모름/무응답	p-value
전체	31.2	4.9	29.5	19.0	14.0	1.2	1.2	
학교급별	중학교	36.4	3.7	27.9	17.3	13.1	1.5	〈.001
	고등학교	26.8	5.9	30.9	20.5	14.9	1.0	
지역 규모별	대도시	32.1	4.8	28.4	21.6	12.2	1.0	.047
	중소도시	31.6	5.3	29.1	17.9	14.0	1.7	
	농어촌	27.9	4.1	33.3	15.3	18.9	0.5	

주: 식품안전 및 영양정책에 대한 관심도에서 '전혀 관심 없다' 및 '관심 없다'를 선택한 학생 990명 대상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4-102〉 재구성.

3) 가정 내 섭취 식수 현황

전체 응답자의 26.7%가 가정에서 음식을 2회 섭취한다고 답했다. 점심을 학교에서 먹는 청소년 중에서 집에서 아침, 저녁 두끼를 모두 먹는 비율이 최대 26.7%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간식을 포함해 2회 이하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더 높았고, 3회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높았다. 학업 등의

이유로 바쁜 고등학생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는 2회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1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역 규모별 응답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1. 가정 내 1일 음식 섭취 빈도(간식 포함)

(단위: %)

구분	한 번도 먹지 않는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p-value	
전체	6.8	24.9	26.7	24.1	17.5	-	
학교급별	중학교	5.5	21.4	24.4	28.9	19.8	〈.001
	고등학교	7.9	27.9	28.7	20.0	15.5	
지역 규모별	대도시	7.0	25.1	26.5	23.3	18.2	.821
	중소도시	6.7	24.3	28.3	24.4	16.4	
	농어촌	6.6	26.2	23.5	25.4	18.3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4-103〉 재구성.

4) 식품 구매 현황

전체 응답자의 39.1%가 3~4일에 한 번씩 식품을 직접 구매한다고 응답했고, 매일 1회 이상 구매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4.0%로 나타났다.

매일 식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8.9%로 대도시보다 5.3% 포인트 높고, 중소도시보다 6.3% 포인트 높았다.

식품 구매 시 주요 동행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교급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30.5%가 엄마와 함께한다고 응답했고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28.5%,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그 뒤를 따랐다. 고등학생층에서는 친구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혼자 28.5%, 엄마와 함께라는 응답이 23.8%로 뒤를 이었으며, 아빠와 함께한다는

응답은 모든 그룹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3.0%가 식품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맛을 선택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봤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맛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선택 비율이 높은 것은 가격이었다. 맛을 선택한 비율은 고등학교에서 69.5%로 중학교에 비해 무려 14.1% 포인트나 높았고, 가격을 선택한 비율은 중학교에서 23.3%로 고등학교에 비해 4.6% 포인트 높았다. 맛과 가격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선택 비율이 높은 요인은 중학교에서는 위생·안전, 고등학교에서는 건강이었다. 건강과 위생·안전을 선택한 비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더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규모별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2. 식품 구매 현황 결과

(단위: %)

구분	구분	거의 구매하지 않았다	3~4일에 1회	1~2일에 1회	매일 1회	매일 2회 이상	p-value	
	구매 빈도	전체	20.5	39.1	26.4	10.1	3.9	-
학교급별		중학교	20.9	39.7	26.0	9.0	4.5	.317
		고등학교	20.1	38.6	26.7	11.1	3.4	
지역 규모별		대도시	21.3	39.6	25.5	9.9	3.7	.233
		중소도시	20.5	39.8	27.2	9.1	3.5	
		농어촌	18.3	36.1	26.8	13.4	5.5	

(표 계속)

	구분		엄마	아빠	형제	친구	거의 혼자	모름 /무응답	p-value
	동행인	전체		26.9	4.8	7.3	33.4	27.5	0.0
학교급별		중학교	30.5	5.8	8.9	28.5	26.4	0.0	<.001
		고등학교	23.8	4.0	6.0	37.6	28.5	0.1	
지역 규모별		대도시	27.5	4.8	7.1	33.0	27.6	0.0	.930
		중소도시	26.6	5.1	8.0	32.7	27.5	0.1	
		농어촌	25.7	4.4	6.3	36.3	27.3	0.0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	색·모양 ·포장	건강 (다이어트 등)	모름 /무응답	p-value
	전체		20.8	63.0	8.3	1.6	6.3	0.0	-
영향 요인	학교급별	중학교	23.3	55.4	12.5	2.0	6.8	0.0	<.001
		고등학교	18.7	69.5	4.7	1.2	5.9	0.1	
	지역 규모별	대도시	20.5	63.5	7.5	1.8	6.7	0.0	.428
		중소도시	19.4	64.1	9.0	1.6	5.8	0.1	
		농어촌	25.1	59.0	8.5	0.8	6.6	0.0	

자료: 정기혜 등(20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4-103, 104, 105, 106> 재구성.

6. 나가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조사로부터 산출된다. 모든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영양 수준을 비롯해 환경 개선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전지수 산출을 위해 실시되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조사 역시 기초 지자체별 초·중·고등학교학생들의 실제 인식 및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 중요성이 강조된다.

2015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예비 조사에 따르면 식품안전 및 영양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관심이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관련 제도를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주로 학교와 방송매체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교내 활동이나 수업 시간 등의 학교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대상의 방송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교육에 대한 거부감 없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ICT) 교구와 SNS 등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지역별로 식품안전과 영양 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매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신설된 문항을 활용한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는 앞으로 국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와 함께 연령대별 정책 인식도를 비교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현재 맛을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었다. 동시에 조사 결과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식품 구매에 위생·안전이 영향을 준다고 선택한 비율이 7.8% 포인트, 건강이

영향을 준다고 선택한 비율이 0.9% 포인트 낮다는 점도 결과도 주시할 만했다.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위생·안전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다. 심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행동 습관 같은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사회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미 자아가 확립된 성인의 행동 교정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직 자아 확립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청소년의 건강은 건강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안전 및 영양제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식품위생·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